

## 홍콩, 장거리 전화요금 하락

홍콩의 장거리 전화요금이 급속히 떨어질 전망이다. 최근 홍콩텔레콤은 001 IDD(International direct dial)서비스 보다 훨씬 저렴한 대체 서비스를 채택하기로 계획중이다. 현재 홍콩에는 콜백서비스를 도입한 0060이라 불리는 장거리 전화서비스가 12개국과 연결되어 아주 저렴한 요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텔레콤의 마케팅 담당인 Jeremy Godfrey는 이번 가격인하가 그동안 간과해 왔던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001서비스가 질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 의해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값싼 서비스로 돌아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홍콩텔레콤이 국제전화시장에서 20%내지 30%정도를 경쟁사에 빼앗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홍콩텔레콤의 미국간 001 IDD서비스가 분당 6.80 홍콩달러인데 반해, 0060 서비스는 분당 2.99 홍콩달러, 할인대에는 분당 1.99홍콩달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uters, Newsbytes, 1997.4.16, 4.17)

## 베트남, 통신 민영화 조치 강화

베트남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체가 곧 민영화되어 개인에게 매각될 예정이다. 통신장비와 케이블 제조업체인 Sacom의 240,000주가 6월 초에 주당 500,000 동(약 331.61홍콩달러)에 매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acom의 Nguyen Thanh Canh은 이번 민영화 조치가 자본확보와 생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취지아래, 회사의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Sacom의 주식 51%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Sacom은

1996년에 710억 동의 매출을 기록했다. 주식의 15%는 자사 근로자들에게 매각될 것이며, 34%는 기타 통신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매각될 것이다. 베트남 공산당 정권은 최근 몇 달 동안 국가 소유 기업의 민영화조치를 계속해서 단행해 오고 있다. (Newsbytes, 1997. 4. 24)